

한지소재를 이용한 드레스 디자인 연구

A Study on the Design of Korean Paper Dress

강 지 영 · 손 영 미⁺

Kang, Ji Young · Shon, Young Mi⁺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조교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부교수⁺

Assistant, Fashion Design, Division of Design, College of Arts and Design, Chosun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Fashion Design, Division of Design,
College of Arts and Design, Chosun University⁺

Abstract

In modern society, various ways are being sought to promote the culture of a country and other additional icons associated with it. South Korea is no stranger to such trend, and it is making tremendous efforts to promote its presence all over the world. There may be a wide range of ways to promote one's own culture, and Hanbok (Korean traditional dress) is a popular cultural icon that best represents Korean style. Hanbok is symbolically at the fore of making a powerful country equipped with a sophisticated culture through globalization. It is backed up not only by widespread interest in traditional culture, but also continual expansion of the Korean wave phenomenon. Consequently, many Korean designers currently feature the traditional beauty of Koreans in the field of fashion, further taking it into the world stage.

In addition, the modern fashion industry requires fresh, unique and personalized materials. As the beauty inherent in the material itself is preferentially considered at the stage of design and interest in wellbeing-themed natural materials and natural dye is increasing due to environmental issues, environment-friendly materials are drawing considerable attention. Native Korean Paper has a unique natural beauty and simplicity that evokes a feeling of affinity. It is made from bast fiber from paper mulberry. It is durable, light, tough and soft. It also has good air permeability, excellent storage quality and does not pose harm to the human body. With such properties, Korean Paper is excellent for fashion materials, contributing to the future development of Korean fashion design.

In this respect, the study proposes that our unique Korean Paper can be used in designing Korean style dresses.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possibility of traditional beauty in terms of modern and creative aspects. Moreover, it aims to promote the excellence of Korean culture to the world and develop differentiated designs at the same time. The study has significant implication in that it brings renewed awareness regarding the excellence of Korean Paper as a material in making practical dresses.

Key Words : Hanbok(Korean traditional dress), Korean Paper, Dresses

접수일: 2008년 8월 27일, 심사일: 2008년 9월 5일, 게재확정일: 2008년 10월 13일
교신저자: 손영미, ym-shon@hanmail.net

※ 본 연구는 2007학년도 조선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I. 서론

1. 연구의 목적

현대사회는 각 나라의 문화 및 그에 따른 부수적인 아이콘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전 세계에 한국이라는 이름을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일본, 중국, 대만, 베트남 등의 동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확산되어온 ‘한류(Korean Wave)’는 미국, 유럽까지 급부상 하였고 한국의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은 세계 각국으로 고가의 개런티에 수출되고 있다. 한국문화의 원류로서 대표성과 상징성을 띠고 동시에 생활화, 산업화, 세계화가 가능한 한글, 한식, 한옥, 한지, 한국음악 등은 전통문화를 브랜드화 하려는 전략적 지원을 통해 고용 및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지변을 확대시키고 한류의 지속적인 확산에 기여, 세계화를 통해 문화 강국을 실현하고자 하고 있다. 문화를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나 가장 한국적인 요소를 반영한 대중적인 문화 아이콘으로는 한복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사회적 현상에 힘입어 현재 많은 국내 디자이너들이 세계시장에 진출하여 한국의 전통을 다양한 방식으로 접목시키고 있다. 전통에 대한 재인식은 1980년대 이후 많은 디자이너들이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이다’라는 생각과 우리의 옷을 세계인에게 입히겠다는 생각으로 한국 고유의 미의식을 바탕으로 패션에 한국 전통미를 표현하여 세계무대로 진출하고 있다.

아울러 현대의 패션산업은 일반적인 소재에서 벗어난 새로운 재료에 의한 개성 있는 재료를 필요로 한다. 소재 자체가 지니는 아름다움이 디자인 단계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며, 환경 문제로 웰빙을 테마로 한 천연소재, 천연염료에 관한 관심이 증가되어 환경 친화적인 소재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한지는 우리나라 고유의 종이이며, 자연스럽고 소박한 느낌의 독특한 심미성을 가지고 있어 누구에게나 친근감을 주는 소재이다. 한지의 주원료는 닥나무의 인피섬유로서 내구성이 강하고 가볍고 질기고 부드러우며, 통기성이 양호하고 중성지로서 보존성이 탁월하며 인체에 무해하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한지의 패션소재로의 가능성은 질겨서 잘 찢어지지 않고 재질이 매우 부드러우며, 가볍고 구겨져도 잘 펴지며 물에 넣어도 잘 풀어지지 않아서 패션소재로서 아주 독특하고 우수한 우리 패션 디자인의 발전방향을 도모할 고유의 소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종이의상에 관한 연구는 동서양의 많은 작가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고 일부는 산업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한지의 전통미와 우수성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디자이너들에 의해

시도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전통을 재해석하고 조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사회 각 분야에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한지 의상전시 및 한지 패션쇼, 한지 예술 의상전 등의 행사를 통하여 한지의상의 조형성과 실용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 고유의 종이이며 독특한 재질을 가진 한지소재를 가지고 한국복식의 형태를 응용한 드레스 디자인을 개발,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전통미의 현대적이고 창조적인 가능성을 제시하고 세계무대에서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알릴과 동시에 차별화 될 수 있는 디자인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을 두며, 한지를 이용한 실용의상을 개발함에 있어 한지의 우수성을 새롭게 재인식하는 데 의의가 있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전통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지니는 우리 고유의 복식인 한복의 독특한 심미성과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우수한 문화유산인 전통한지를 소재로 이용하여 드레스를 제작하고자 한다.

첫째 한지에 대한 일반적 고찰로, 한지의 특징을 알아보고 한지의상의 발전과 한지를 소재로 한 의상 제작 시 빈번히 사용된 기법을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둘째, 한국복식의 특징을 알아보았는데 특히 현 시대의 한복의 형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조선시대 여자 복식에 대해 살펴보고 현대 디자이너 중에서 이를 응용한 디자인에 대해 연구하였다.

셋째,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실제로 의상을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한지는 현재 시판되는 한지를 사용하였으며, 기법적인 면에서는 기존에 발표되었던 한지 의상 제작 기법에 한국복식의 형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디자인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종이의상의 역사

인류가 종이를 의복의 재료로 이용하기 시작한 역사는 매우 깊다. 최초의 종이의상은 일본에서인데, 헤이안(平安: 794~1185)시대의 중기인 988년 쇼우쿠(性空) 스님에 의해 만들어 졌다고 문헌에 나타나 있다. 이 종이의상은 짜여 지지 않고 한 장 한 장 접착된 종이 층으로 이루어졌으며 지의(紙衣)라고 불리어졌다.

우리나라에서는 임하필기(林下筆記, 현종7년)에 인조가 겨울철에 대비해 목화가 생산되지

않는 관북지방(함경북도) 백서들에게 저고리 500벌과 낙폭지(창호지 같은 질긴 종이) 400장을 보내 옷을 지어 입게 했다는 기록은 관북지방의 심각한 의복 난을 말해주는 동시에 종이옷이 풍속을 이루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²⁶⁾.

서양에서는 1853년 처음으로 종이로 된 셔츠, 칼라, 소매 등이 부분적으로 등장하여 의상에 새로운 혁신을 가져온 후 1870년까지 보스턴의 한 제조업자는 일 년에 7500만개의 종이 칼라를 만들었다. 한편 양복 조끼, 모자, 에이프린에 이르는 다양한 일상품이 종이로 제작되었고²⁷⁾, 그 후 종이의 우월성을 표현한 ‘종이시대(The Age of Paper)’라는 대중음악이 런던 뮤직홀에서 발표되기도 했으나, 그 후 종이옷은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되었으며 에이프린이나 외과용 마스크 등에 국한되어 소량만이 생산되었다.

종이를 사용한 의상의 역사를 살펴보면 서양의 종이의상은 작가의 감성과 예술성을 미술 기법으로 형상화한 예술품으로 여겨졌으나, 동양의 종이의상은 기능을 갖춘 실용복의 의미가 컸다.

현대에 와서 종이의상은 작가의 감각과 사상을 전달하는 예술 표현의 한 매체로서 인식하게 되면서 다양한 재료와 기법으로 미적, 조형적 표현을 하기에 이르렀다. 즉 직물에서 벗어나, 종이, 비닐, 금속, 유리, 플라스틱, 고무 등 다양한 소재로 확산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종이는 다른 재료와 달리 천연 섬유와 같이 인체에 닿았을 때 거부반응이 없으며, 통기성, 보온성, 흡수성이 높아 현대의상의 새로운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현대적 감각의 종이의상은 1960년대 이후부터 현대적 감성의 예술의상(Art to Wear) 속에서 가끔 나타나기 시작하여 현재에는 많은 디자이너들이 의상이나 액세서리에 종이의 독특한 질감을 표현하고 있다.

산업사회의 일회용품 사용 증가에 따라 1960년대에 일회용 종이옷이 유행하였다. 1966년 Scott paper 주식회사에서 종이옷을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착시효과(錯視效果)를 노리는 원피스로 표면에 고열을 가해 잔선을 넣었다. 가격은 1달러 25센트였으며 50만장 이상이 팔렸고, 불에 강한 종이옷과 세탁을 할 수는 없지만 더러운 부분을 잘라낼 수 있는 300달러의 종이털 코트²⁸⁾도 만들어 졌다.

60년대 후반에는, 가위질만으로 옷을 고칠 수 있으며 또한 마음대로 쓰고 버릴 수 있는 싸고 보편적인 종이옷이 대중예술(Pop Art)의 감성과 잘 들어맞았다. 그러나 세계가 일회용 제품 사용에 있어서 쓰레기 문제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게 됨에 따라 종이옷의 유행은 오래가지 못하였다. 이러한 옷들은 기능성을 위하여 화학적인 가공을 하거나 섬유소 자체가 닥 섬유

26) 조효순(1998). 한국복식풍속사연구, 일지사, p. 201

27) 전양배(2000). 한지를 이용한 의상디자인 연구-지포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5

28) 전양배(2000). 한지를 이용한 의상디자인 연구-지포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5

같은 식물성 천연섬유가 아니므로 우리의 한지의상과는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종이의상은 주로 예술의상 작품발표나 무대의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60년 후반기 미국에서 일어난 예술의상 운동은 섬유미술과 의상의 만남으로 인해 파생된 새로운 형식의 예술이다²⁹⁾. 이는 1985년 미국의 현대섬유예술가 24명의 수공예 의상 전시인 ‘예술의상(Art to Wear)’전이 서울 롯데백화점 전시실에서 소개된 것을 기점으로 1986년 한국섬유미술가협회 회원들에 의해 예술 상전이 개최된 이후, 섬유미술과 패션디자이너가 상호교류 하면서 많은 작가들이 다양한 작품을 발표하고 있다. 그 이후로 최근까지 예술의상 분야에서 실험적 소재 정도로만 다루어지던 종이의상은 최근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특히 한지의 활용은 1998년 전주종이축제 일환으로 전주한지패션쇼가 개최되면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원주한지축제 등에서도 패션쇼를 통해 선보이게 되었고 최근 들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게 되었으며 그 사용도 다양해지고 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착용할 수 있는 의상은 물론 연극과 영화, 그리고 각종 퍼포먼스에서 사용되는 의상, 웨딩의상, 연주복, 파티복 등 여러 가지 특수복들이 한지로 제작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넥타이, 지갑, 가방 등도 한지를 이용해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전주한지패션쇼에서는 사용소재의 80%이상을 한지만으로 구성된 옷으로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이는 매년 열리는 행사로서 종이축제 안에서 중심적인 문화행사로 성장하고 있다.

초기 한지의상전이 처음 열렸을 때만해도 한지의상은 말 그대로 한지를 염색하고 재단한 것이었다. 다소 뻣뻣하고 맵시가 떨어지고 실용성도 없었으며 이후 수의(壽衣)와 일회용 가운 같은 한지 상품이 개발되었지만 큰 호응을 받지 못하였다.

2000년부터는 한지패션의 저변확대와 후진양성의 목적으로 한지패션디자인경진대회가 개최되었고, 이런 패션쇼나 대회들은 외형적인 성공 뿐 아니라, 한지를 의상의 소재로 끌어 들이는 소재개발 면에서도 획기적인 기법들을 선보이고 있다.

실제 생활에 활용할 정도의 상품이 등장한 것은 한지로 실을 만들고, 이를 천으로 짠 한지 직물이 개발된 2005년부터이며, 그해 한지문화제에 참여한 피엔에스코리아(P&S KOREA)는 한지직물로 만든 남성 자켓과 넥타이를 선보였고 2006년 한지문화제에서는 청바지도 출품하였다. 자켓은 일반 소재에 비해 부드러움이 덜하고 청바지는 세탁할 때 조금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산업화 가능성을 인정받았으며 더 부드럽고 실용적인 한지직물을 개발해 니트, 스카프 등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29) 최은령(1987). 현대미술의상에 관한 연구,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6

2. 한지의 특성과 한지의상의 디자인 기법

오늘날 우리 종이는 크게 한지(韓紙)와 양지(洋紙)로 나눌 수 있으며, 한지는 수부지(手浮紙)와 기계한지로 나눌 수 있다. 수부지는 손으로 뜨는 종이를 말하는데 통상 한지라 불리는 것으로, ‘고유의 인피(靱皮)섬유로 된’, ‘손으로 뜬(手淨)’, ‘동양적 품격을 지닌’ 종이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이것은 기계로 생산한 것이 아니라 수공예적 가치를 지닌 우리 고유의 종이라는 뜻이다³⁰⁾. 기계 한지는 만드는 방법은 같으나 기계를 사용하여 대량으로 제조하는 것을 가리킨다.

한지의 명칭은 한지라는 단어 말고도 조선종이, 창호지, 문종이, 참종이, 닥종이, 닥지, 저지 등 다양하게 불리어졌고 명칭 자체가 그 원료를 암시하고 있다³¹⁾.

한지의 특성은 두껍고 질기면서도 부드럽고, 수명이 오래간다는 것 외에도 섬유질의 보온성과 통풍성, 투명성, 기법의 수공예성, 보존성 그리고 유연성이 아주 강하다. 한지는 질기고 부드러운 물성, 그리고 견고한 재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본성을 버리고 순응하고 밀착하는 자연스러운 특성³²⁾도 가지고 있다.

특히 한지의 견고한 특성은 한지를 몇 겹으로 바른 갑옷의 예에서도 볼 수 있다. 옷칠을 입힌 몇 겹의 한지로 만든 갑옷은 화살도 뚫지 못했다고 한다.

한지의 우수성은 창문용으로 사용되는 창호지의 열적 성능에서도 잘 나타난다. 한옥에서 사용하는 창호지와 현대 기술의 산물인 창유리와의 열적 성능을 비교해보니 에너지 파동 이래 많은 건물에서 사용되고 있는 값비싼 이중 창문보다 한지(창호지)를 사용한 이중 창호지문의 열적 효과가 높았다³³⁾. 조선의 19대 임금인 숙정9년에는 양반들이 종이신 신는 것을 멋으로 알고 시중에 신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지자 이를 만들어 파는 자들이 많았고 사대부 집들에는 서책 도둑이 극성이라 철저히 단속하라는 어명이 내려졌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더욱이 요즘도 북경의 상류사회에서는 우리나라 전통한지로 방 벽을 바르는 관료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한 장의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손길을 거친다. 손으로 만들어진 한지를 주무르고 다듬으면서 본능적 유희성과 손맛을 느낄 수 있으며, 곱고 질기며 마치 살아서 숨 쉬는 듯한 생명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예로부터 종이로 옷을 만들어 입으면 뼈에 좋다고 하여 매장이나 이장시 한지를 많이

30) 이승철(2002). 우리한지, 현암사, p. 17

31) 제홍규(1973). 한지사 소고, 국립중앙도서관.

32) 이은경(1998). 현대 종이 작업의 조형적 표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

33) <http://www.wjhanji.co.kr>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한지를 이용해 만든 수의(壽衣)는 현재 본격적으로 시판이 이루어져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 최근 산업화된 한지수의를 한지의 소재적인 특징을 잘 살린 상품이라 할 수 있다. 한지수의를 염습 때 사체의 고정용으로 사용되는데, 이장 할 때 살펴보면 삼베보다 분해가 빠르고 완벽한 것으로 보여 진다. 한지수의를의 또 다른 장점으로서는 연소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장례문화는 급속도로 화장의 형태로 변해가고 있어 1998년 기준 27.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50%를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추이를 보더라도 한지수의를의 개발은 여러 가지 면에서 과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한지의 특성은 일반적으로 의류에서 사용하는 거의 모든 디자인 기법을 활용하는데 손색이 없으며 특히 천연재료로써 직물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최근 활발하게 개최되고 있는 한지 문화행사, 한지 의상전 및 한지패션쇼는 우리 한지의 우수성을 알림과 동시에 한지의상의 조형성과 실용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행사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전주패션협회에서 주최가 되어 진행되는 한지 관련 행사 중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이루어진 전주한지패션쇼와 한지 의상전의 팸플릿에 나온 작품들을 분류해 본 결과 한지를 이용한 패션쇼, 전시 등을 통해 선보인 한지 의상 작품들에 쓰인 기법은 줌치기법, 니팅, 염색, 자수, 지승공예 등 다양하며 특히 주름기법, 누비, 컷팅기법, 직조 등의 기법은 한지 의상 작품에서 자주 보여지는 기법이다.

줌치는 물에 적서 두드릴수록 질겨지는 한지의 성질을 이용한 것으로 고운 주름이 잡힌 가죽 같은 느낌이 나며 섬유질에 의해 부드럽고 질겨져서 쉽게 찢어지지 않는 특성 때문에 여러 곳에 응용이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특수성으로 현대의 섬유 시장 공략 및 산업기술 발달에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전통기법이다. 줌치기법을 사용한 작품은 유나라 (작품명: A love story of only theirs)의 작품이 있으며 줌치기법을 이용하여 제작한 드레스로 한지에서 부족한 내구성을 증가시키고 시간이 지나면 가죽 같은 느낌을 주는 효과를 표현하였다. 드레스 전체를 스팅글로 장식하고 자수 레이스를 상의와 스커트의 햄라인에 부착하여 더욱 고급스러움을 연출하고 있다<그림 1>.

니팅기법은 한지로 실을 만들어 니트를 제작하는 것으로 통기성이 부여 될 뿐 아니라 촉감이 깔깔하여 여름용 의상으로 적합하다. 또, 세탁과 착용을 반복할수록 부드러워짐으로 세월이 지남에 따라 종이옷의 멋을 느낄 수 있다. 임영주 (작품명: 라일락)의 작품은 한지를 염색한 실로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이 나타나도록 하였고 스커트의 아랫부분에는 꽃 모티브로 포인트를 주어 니팅기법을 잘 활용하고 있다<그림 2>.

염색은 침염과 흘치기염을 비롯하여 붓질의 기교를 이용해 회화적으로 표현하고 수목화 기법을 이용하거나, 스프레이염, 뿌리기염 등을 사용한다. 오나령 (작품명: Reiteration)의 작품은 플라운스의 끝부분을 염색 물감에 담가 염색이 위로 자연스럽게 퍼지는 효과를 노렸으며 그

것들을 겹쳐 작품을 제작하여 우아함을 증가시켰다. 웨이스트라인 아래로 커다란 꽃을 역시 염색 기법을 이용한 한지로 만들어 포인트를 주고 있다<그림 3>.

자수는 형겔·가죽 등의 표면에 실·끈·리본 등을 바늘 또는 바늘 모양의 도구로 꽃아서 수놓은 그림이나 도안을 말하는데 비즈·스팽글·진주 외에도 형겔이나 가죽을 도려내거나 씨실을 뽑아내어 무늬를 나타내기도 한다. 전향란 (작품명: Fly in the sky)의 작품은 흰색과 검정색의 한지를 금색으로 자수와 스티치로 장식하여 상의와 하의를 조화시켰다<그림 4>.

지승공예 기법은 종이를 좁다랗고 길게 잘라 엄지와 검지로 비벼 꼬아 노끈을 만들고 이를 엮는 것을 말한다. 때로는 색지나 검은색 물을 들인 종이를 함께 써서 무늬를 장식하기도 하였으며 책의 먹 글씨가 자연스럽게 무늬를 이루게 되어 오히려 운치 있어 보이기도 하였다. 지승공예가 잘 나타난 작품으로는 주명희의 작품이 있다. 주명희(작품명: 향기11)의 작품은 지끈의 끝부분을 꽃으로 만들어 참신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끈으로 상체부분은 인체의 굴곡을 따라 자연스럽게 붙여주었다. 또한 아랫부분은 개더가 들어간 티어드 스커트로 발랄한 효과를 내고 있다<그림 5>.

주름은 종이나 옷감의 폭을 줄여서 접은 선을 말하는데, 주름에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주름과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주름이 있다. 전자는 플리츠나 개더 같은 기능성이나 장식성을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주름이 있고, 후자에는 드레이프 같은 천의 걸침으로 인해서나 구김으로 해서 생기는 주름을 말한다. 현선희(작품명: 꿈)의 작품은 직선적인 주름과 곡선적인 주름이 적절히 매치되었다. 하이웨스트 라인의 원피스로 상체 부분은 직사각형의 종이를 직선으로 반복적으로 접은 후 부채꼴 모양으로 펼치듯이 만든 여러 크기의 원을 만들어 장식하고 하의는 긴 직선주름을 접어서 길어 보이는 효과를 주었다<그림 6>.

2겹의 피륙 사이에 솜을 넣고 줄줄이 흠질하는 바느질을 누비라고 하는데, 피륙의 보강과 보온을 위한 기법이다. 한국에서는 조선시대 초기의 유물에서 누비옷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는 치마·저고리·포·바지·두의(頭衣)·신발·버선·띠 등 옷가지와 침구에 이르기까지 누비가 다양하게 쓰였다. 누비가 전체적으로 들어간 작품으로는 김경희(작품명:바이올렛)의 작품이 있다. 이 작품은 누비의 간격은 일정하게 통일하였으나 허리 아래 부분과 밑단에 박음질 방향의 변화로 재미를 주었다<그림 7>.

컷팅기법은 한지를 여러 겹을 겹쳐놓고 누빈 다음 사이의 공간을 가위로 잘라 모양을 만드는 것으로 자잘하면서도 반복적인 형태가 환상적인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 이숙희(작품명:Secret garden)의 작품은 줌치기법을 사용하여 한지의 강도를 높여 주고 안감이 보이도록 겹감을 잘라 주는 컷팅기법을 사용하였다. 겹감과 안감의 중간색상을 사용하여 디테일을 만들어 전체적으로 잘 어우러지게 표현하였다<그림 8>.

직조를 할 때 경사는 일반 면사로 위사는 가늘게 자른 한지나 한지 실을 이용하는데 실의

굵기와 한지의 유연성에 따라 여러 가지 재질이 형성된다. 이 방법은 강도가 증강되고 유연성이 부여되어 현재 시도하고 있는 기법 중에 비교적 실용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강경자(작품명: Flower)는 옷 전체를 하나의 꽃으로 표현한 홀터넥 스타일의 원피스를 제작하였다. 목과 허리부분을 꽃 모티브를 응용하여 장식하였고, 치마는 줌치 한 한지와 직조기법을 사용하였고 위사에 한지뿐 아니라 다양한 색상의 실을 넣어서 부드러움을 주었다<그림 9>.



<그림 1> 유나라
'A love story of only theirs'



<그림 2> 임영주
'리일락'



<그림 3> 오나령
'Reiteration'



<그림 4> 전향란
'Fly in the sky'



<그림 5>주명희
'향기11'



<그림 6> 현선희
'꿈'



<그림 7> 김경희
'바이올렛'



<그림 8> 이숙희
'Secret garden'



<그림 9> 강경자
'Flower'

3. 한복의 아이템을 이용한 현대의상 디자인의 예

한복의 아이템을 이용한 현대의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후반부터 국내 디자이너들이 해외시장으로 진출을 시도하면서 한국적 이미지를 찾아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부터이다.

한국 복식 중에서도 특히 오늘날 한복의 기본형식이 성립되고, 미화현상이 현저했던 시기³⁴⁾로 우리 전통 복식미를 대표할 수 있는 시대는 조선시대로 이 시대의 복식 형태가 주로 현대의상으로 재현되는 복식으로 이용되었다.

조선시대의 여자복식은 남자복식에 비해 저고리 치마를 그 기본으로 하는 고유의 틀을 유

34) 최세완(1992). 현대패션에 표현된 한국복식의 전통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5

지하고 있었다. 조선시대의 여자 복식은 신분과 계급에 따라 궁중복식, 일반여복, 서민여복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궁중복식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였다.

궁중 복식에는 왕비빈의 예복으로 대삼³⁵⁾과 적의가 있다. 적의는 조선 초 명에서 받아들여 영조 이전까지 배자와 적의가 혼용되었고, 영조 이후 조선말까지는 다홍색 적의를 착용하였다. 또 원삼³⁶⁾은 활옷³⁷⁾, 당의³⁸⁾와 함께 신분에 따라 색과 문양에 차이를 두었으며, 원삼과 활옷은 서민의 혼례복으로도 착용을 허용하였고 사당에 고유제(告由祭)³⁹⁾를 지낼 때도 착용하였다.

조선조 일반 여자들의 평상복은 저고리와 적삼, 치마, 단속곳, 바지, 속속곳, 다리속곳에 버선과 짚신이었다. 특히 속옷이 매우 발달했으며 이것은 겹치마의 패티코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여자 치마는 독특한 실루엣을 갖게 되었다. 물론 천민층은 예외였으나 대체로 조선여자들은 속옷에 관심이 많았고, 무지기, 대습치마 따위는 일반 부녀자의 사용이 제한되었다. 또 유교의 영향으로 내외용 쓰개가 발달하였다.

한복을 일상생활에 끌어들이려는 노력은 1996년 당시 문화체육부에서 기획한 ‘한복 입는 날’의 행사가 실시되면서 패션쇼, 전시회, 세미나 등을 통하여 실현되었다. 그 결과 각종 한복 패션쇼, 생활한복 전문점이 증가하였으며 실용성을 살린 생활한복이 남녀 성인, 아동을 중심으로 고가에서 중저가까지 다양하게 선보였다. 생활한복은 1990년대를 통해 일반인들의 의복 아이템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이외에도 국내 패션 디자이너들이 한복이나, 한국적 문양, 색채 등을 사용한 디자인을 꾸준히 발표하였다. 2000년대 이후 컬렉션에 발표한 디자이너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한국 복식의 형태 중에서는 저고리, 치마, 속옷, 배자의 형태가 현대 패션에서 자주 표현되는 아이템이다<표 1> <그림 10-17>.

최근에는 불편하고 낡았다는 선입견을 털어내고 한복이 갖고 있는 유려한 색상과 선의 아름다움을 앞세워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이방인의 시선을 빼앗아 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의 디자이너들도 한복을 디자인 모티브로 삼아 활동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35) 대삼: 왕후 의대의 하나

36) 원삼: 부녀 예복의 하나로 신부나 궁중에서 내명부들이 입었음

37) 활옷: 공주, 옹주가 입던 대례복, 전통 혼례 때에 새색시가 입는 예복이기도 함

38) 당의: 저고리 위에 덧입는 한복의 하나로 앞길과 뒷길이 길고 도련은 둥근 곡선으로 되어 있으며 옆은 진동선 아랫부분이 트임

39) 고유제(告由祭): 중대한 일을 치른 뒤에 그 내용을 적어서 사당이나 신명에게 알리는 제사

<표 1> 한복의 형태를 이용한 현대의상의 예

	형태 및 특징	작품의 예	
		디자인	이미지
저고리	저고리의 형태는 소매, 길, 깃, 동정, 실 고풍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고리에서 보여 지는 미적인 특징은 화려한 장식이나 입체감보다는 면의 분할에 의한 비례에 있으며 곡선과 직선의 조화로 표현되는 선의 미라고 할 수 있다.	조니헤이트체즈 디자인은 한복 저고리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그린과 골드 스팅글 장식 트리밍에 오간자 소재의 블랙 상의로 표현하였다. 같은 소재로 풍성한 볼륨의 블랙 스커트를 매치해 화려하면서도 강한 여성미를 드러냈다.	 <그림 10>
		윤의한복 디자인은 블레로처럼 가볍게 걸치도록 디자인한 저고리의 아름다운 곡선미가 돋보이며 노리개를 동정 아래에 달아 브로치처럼 활용하였다. 부드러운 시폰의 특성을 활용해 주름을 넉넉히 넣은 슬림한 라인으로 가슴 가운데에 주름을 잡아 볼륨감을 살리고 하이웨이스트라인으로 디자인 하였다.	 <그림 11>
치마	오늘날 보여지는 한국복식의 치마형태는 중복착용으로 인한 치마의 풍성함과 배색의 효과, 착장법에 따른 유동적인 변화, 자연스럽고 율동적인 주름, 여밈 등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되어지고 있다.	제이슨 우의 작품은 한복의 전통적인 치마를 응용한 디자인이다. 치마의 주름을 잡아 자연스러운 볼륨과 앞은 짧고 뒤는 길게 디자인한 의상에 가늘고 긴 끈을 이용하여 마무리함으로써 한복치마 본래의 풍성함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그림 12>
		노승은 디자인은 강력한 레드 포인트의 한복 치마를 서로 다른 색상과 패턴을 매치하여 디자인하였다. 여밈이 앞으로 오게 착용하여 드레스 같으면서 푹 코트처럼 매치하고 성글게 짜인 블랙 블레로와 블랙 타이즈로 마무리 하였다.	 <그림 13>
속옷	우리의 옷은 위는 얇게 입고 아래를 많이 끼입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평상복은 치마 밑에는 하체를 부풀리기 위해 단속곳을 입고 그 밑에 바지와 속속곳을 입었고, 상류층에서는 외출시 단속곳 위에 너른바지를 입어 모양을 더하였고 무지기치마를 입어 더 부풀렸다.	박술녀 한복은 조선시대 귀부인의 속치마인 무지기를 응용하여 한복 드레스를 제작하였다. 러플의 길이를 짧게 함으로써 더욱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하였고 상의는 당의로 제작하여 매치하였다.	 <그림 14>
		한혜자는 한복의 고쟁이에서 모티브를 얻어 딥 골드 컬러의 와이드 팬츠를 디자인 하였다. 같은 컬러의 박시한 블레로를 매치하여 통일감을 주었다.	 <그림 15>
배자	저고리 위에 덧입는 단추가 없는 짧은 조끼 모양의 의상으로 마고자와 비슷하나 소매가 없고 흔히 양단으로 만드는데 속에는 토끼·너구리·양 등의 털을 넣어 가장자리 부분에서 밖으로 털이 드러난다. 조선 후기에는 남녀가 모두 입었다.	이영희 컬렉션에 등장한 배자를 응용한 디자인으로 길감을 공단을 사용하고 안단은 털이 아닌 니트 소재를 사용하여 훨씬 가벼워 보이는 느낌과 어깨선은 연장하여 보온성을 더한 디자인이다.	 <그림 16>
		백옥수 한복의상은 레이스 톱으로 한복의 동정의 선을 네크라인에 응용하고 우아한 아름다움을 더하기 위해 크리스털로 장식하였다. 갑사 소재의 블랙 드레스는 풍성하게 디자인 하였다.	 <그림 17>

III. 작품제작

1. 디자인의도

세계적인 관심 속에 각 나라의 전통양식 및 의복을 다양한 소재와 기법으로 현대적으로 어떻게 재해석 해내고 그러한 의복을 어떻게 문화 콘텐츠로 만들어 대중에게 어필하느냐가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본 논문의 디자인 의도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전통 한복과 한지를 디자인에 접목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한복의 우아한 곡선과 소재의 다양성을 동시에 표현하고자 하였다.

현대복식에 자주 응용되어 한국의 복식 형태 중에서도 특히 형태적 조형미가 인정된 한국 전통복식인 저고리와 치마, 무지기, 배자 등에 표현된 실루엣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하고, 우리의 전통 소재인 한지를 누비, 주름, 직조, 컷팅 등의 다양한 기법을 통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작품에 활용해 한복의 이미지를 표현함과 동시에 현대적인 이미지를 반영한 디자인으로 새롭게 작품을 제작함으로써 한지의 특성과 기법이 의상에 활용되어서 독특한 재질감과 조형미를 표현할 수 있었다. 단 색상은 각 작품의 미적 조화를 고려하여 자유롭게 선정하였다 <표 2> <그림 18-21>.

본 연구에서 소재로 사용된 한지는 특수 제작하지 않고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한지를 사용하였다. 한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섬유에 비해 물에 약한 단점을 보완하고 한지의 내구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줌치를 한 후 접착시지를 보조제로 사용하여 의상의 드레이프 성이나 봉제가 용이하도록 하였다.

2. 작품제작

1) 작품1 (자켓+원피스 드레스)

조선시대 여자 복식인 한복의 저고리를 응용하여 재구성한 볼레로 스타일의 자켓으로 조선시대 초기의 저고리 모양을 응용하여 제작하였다. 저고리는 면 분할에 따라 곡선과 직선의 형태가 조화된 것이 넓은 스타일로 밑단을 둥글게 처리하고, 소매는 자켓의 길이와 어울리게 칠부소매로 제작하였으며 남색 고름으로 포인트를 주었다.

원피스 밑단에는 여러 장의 한지를 겹쳐 봉제한 후 바느질 사이의 가운데를 잘라서 안의 한지가 밖으로 보이게 작업 하는 컷팅 기법을 이용하여 반복적이고 환상적인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

컷팅기법에서는 서로 다른 색상을 겹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같은 색상을 여러 장 겹쳐서 볼륨감을 주었는데 실제로는 같은 색상을 겹치는게 훨씬 더 멋스러워 보였다.

또한 밑단부터 허리부분까지 세로로 다양한 길이의 주름을 봉제하여 울동미를 주었다<그림 22>.

2) 작품2 (원피스 드레스)

한복 치마의 풍성함을 이용한 하이웨스트라인의 원피스 드레스를 제작하였다.

기법은 누비기법으로 가슴부분을 누벼주었으며 스커트는 부분은 주름기법으로 자연스럽게 울동적이며 풍성한 라인을 연출하였다. 뒷부분의 여밈은 서양복식의 코르셋의 디자인을 응용하여 끈으로 조절할 수 있게 제작하였다. 치마의 여유부분에는 고무줄을 넣어서 사이즈에 상관없이 착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염색을 하지 않은 한지 사용하여 밋밋해 보일 수 있는 것을 치마의 풍성함과 액세서리로 보충하였다.

액세서리로는 방한용으로 많이 쓰이는 손싸개를 누비기법으로 만들고 모피를 사용하여 테두리와 안단을 마무리하였다<그림 23>.

3) 작품3 (원피스 드레스)

한국복식 중 속옷의 한 종류인 무지기 치마 형태를 응용하여 미니 드레스를 제작하였다. 5겹을 모두 주름 잡아 한꺼번에 박는 원래 무지기 치마의 항아리 형태에서 하이웨스트 라인에서 출발한 티어드 스커트로 변형된 5합 무지기 치마를 제작하였다. 기법은 주름기법을 이용하여 장식적 효과와 함께 공간적 부피감, 리듬감, 통일감을 주었다.

직선적인 주름의 하의와 반대로 상의는 부드러운 꽃으로 장식하였고, 다양한 크기 꽃을 만들어 한쪽어깨에서부터 반대쪽 허리선으로 흘러내리듯이 부착하였다.

꽃을 제외한 한지전체에 접착심지를 부착하여 내구성을 높였고, 상의에 장식된 꽃 모티브는 한지를 일정한 크기의 원으로 오려 5~6장을 겹치게 배열 한 후 밑에서 1cm 위를 가볍게 흠질하여 잡아당겨 손으로 형태를 만들어 마무리 하였다. 스커트에 쓰인 5 가지 색상을 사용하여 어울리게 배치하여 한 송이 꽃으로 만들어 하의와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하였다<그림 24>.

4) 작품4 (조끼+자켓+스커트)

기법은 직조기법을 그리고 모티브는 조선시대 복식 중 배자를 응용하였다. 즉 한지를 이용하여 직조기법으로 지포를 만든 후 배자 형태의 조끼를 만들었다. 경사는 일반실을 걸고 위사를 한지로 사용하였는데 한지를 한번 말아서 사용하여 볼륨감을 주었다. 배자의 가장자리에는 모피를 둘러 주었다.

작품의 전체적인 기본적인 형태는 한복을 응용하였는데 스커트는 끈허리를 이용하여 가슴 위에 묶고 그 위에 한복의 저고리의 형태를 이용한 자켓을 코디하였다. 자켓은 한복 기본의 배래선은 가지고 있지만 더 완만한 곡선으로 변형하고 소매 길이는 칠 부로 하였다.

스커트는 한지와 노방을 두 겹으로 사용하였고 겉에 노방으로 제작된 스커트는 풍성하게 주름을 잡아 볼륨감을 주었다<그림 25>.

<표 2> 작품 제작 표

	작품 1	작품 2	작품 3	작품 4
모티브	저고리	치마	무지기	배자
모티브 사진	 <그림 18>	 <그림 19>	 <그림 20>	 <그림 21>
기법	커팅	누비	주름	직조
소재	한지, 접착심지	한지, 접착심지, 누비솜, 모피	한지, 접착심지	한지, 접착심지, 노방, 털실
색상	남색, 보라색, 연보라색, 연분홍색	미색	미색, 분홍, 연분홍, 남색	미색, 연보라색, 연분홍색, 연녹색, 하늘색



<그림 22> 작품 1



<그림 23> 작품 2



<그림 24> 작품 3



<그림 25> 작품 4

V. 결 론

한복의 아름다움에 대한 연구는 과거의 전통복식에 대한 재인식을 통해 우리의 위상을 확인하고 한복의 미를 현대에 계승하여 보다 참신한 미래 패션문화의 창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작업은 한복미의 깊은 이해를 돕고 국제 정보화 시대에 따라 한복의 우수성을 세계 패션시장에 소개하는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한지는 탄력성이 좋고 부드럽고 가벼울 뿐만 아니라 여러 겹 배접하면 단단하고 질기다. 또한 염색성이 좋아 색감이 탁월하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소박하고 은은한 미적 감각을 느낄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지의상과 한국복식의 일반적 고찰을 살펴보고 사례분석을 통해 한국복식의 형태적 특성을 이용한 한지소재 드레스를 제작하였다.

첫째 한지의 일반적인 고찰로, 한지의 특성을 알아보고 한지의상의 발전과 한지를 소재로 한 의상 제작시 빈번히 사용된 기법을 분류하여 살펴 보았다. 즉 한지의 일반적인 고찰과 소재가 되는 한지의 특성을 알아보고 의상소재로서의 한지의 기법들을 수집 분석한 후 한복의 형태적인 특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디자인하였다. 한지는 독특한 제지술에 의해 만들어 지므로 섬유소의 길이가 길고 강도와 유연성, 보온성이 일반 양지에 비해 뛰어나다. 이러한 장점들은 한지를 의상소재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한국복식의 특징을 알아보았는데 특히 현 시대의 한복의 형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조선시대 여자 복식에 대해 살펴보고 현대 디자이너 중에서 이를 응용한 디자인에 대해

연구하였다. 조선시대 여자 복식 중에서도 특히 저고리, 치마, 속옷, 배자가 현대 패션에서 자주 이용되는 디자인 모티브로 한국의 디자이너 뿐만 아니라 외국의 디자이너들도 이를 모티브로 삼아 활동하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다.

셋째,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실제로 의상을 제작하였다. 수공으로 만들어지는 한지의상은 현대의상의 가치와 독창성, 실용성, 예술성을 높이기 위해 계속 시도되어야 하며, 한지의상의 보편화를 위해서는 세탁 불가능, 탈색의 우려 등의 단점에서 보완하여 실용성 있는 한지개발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한지로 의상 제작시, 줌치기법을 쓰지 않은 한지일 경우 튼튼하지 않아 봉제시 파손의 우려가 있으며 부드럽지 않아 실루엣이 어색한 형태가 되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의상 제작을 위한 한지는 기본적으로 줌치기법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단 줌치기법을 사용하면 원단에 잔 구김이 생겨 깔끔한 형태의 의상을 제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한지의 우수성을 재인식하였으며 의상의 소재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더욱이 환경친화 소재라는 점에서 현대사회에서 앞으로 고부가 가치가 많은 것으로 인식되어졌다. 앞으로 국제무대에서도 세계인이 공감 할 수 있는 보편성을 갖기 위하여는 현대의 상에서 요구하는 복식의 가능성과 유행경향을 파악하고 그것을 디자인에 수용하여 잘 조화시켜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용서·안명숙(1998). 한국복식사. 예학사.
- 맹재인(1976). 한국의 민속공예.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이승철(2002). 우리한지. 현암사.
- 전 철(2003). 한지. 원광대학교 출판국.
- 제홍규(1973). 한지사 소고. 국립중앙도서관.
- 조효순(1989). 복식. 대원사.
- 조효순(1988). 한국복식풍속사연구. 일지사.
- 김영은(2005). 한지패션소재 개발 및 조형적 활용연구.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호(1988). 한지공예의 변천 과정 및 그 개선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지선(1989). 조선시대 편복포의 형태를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천웅(1989). 한지' 제지에 관한 고제. 연세어문학 6권.
- 금기숙(1988). 조선시대 편복포의 형태를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기연(2000). 한복의 조형적 특성을 응용한 현대의상 개발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철(1994). 우리나라 회화사에 한지가 미친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경(1988). 현대 종이 작업의 조형적 표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건만(1992). 한지와 옹기를 이용한 작품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희영(1987). 우리나라 현대 여성복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양배(2000). 한지를 이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 지포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세완(1992). 현대패션에 표현된 한국복식의 전통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은령(1987). 현대미술의상에 관한 연구.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태호·조남식(1996). 닥나무를 이용한 새로운 한지의 제조 제1보. 한국펄프종이공학회. 28호.
- 홍주영(2004). 한지를 이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 한국전통의상을 중심으로.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그림 출처]

- <그림 1> 유나라(2004). A love story of only theirs. 전주한지패션쇼 팸플렛. p.17.
- <그림 2> 임영주(2004). 라일락. 전주한지패션쇼 팸플렛. p.36.
- <그림 3> 오나령(2004). Reiteration. 전주한지패션쇼 팸플렛. p.17.
- <그림 4> 전향란(2002). Fly in the sky. 전주한지패션쇼 팸플렛. p.32.
- <그림 5> 주명희(2002). 향기11. 전주한지패션쇼 팸플렛. p.37.
- <그림 6> 현선희(2002). 꿈. 전주한지패션쇼 팸플렛. p.43.
- <그림 7> 김경희(2002). 바이올렛. 전주한지패션쇼 팸플렛. p.7.
- <그림 8> 이숙희(2006). Secret Garden. 국제한지패션쇼 팸플렛. p.48.
- <그림 9> 강경자(2006). Flower. 국제한지패션쇼 팸플렛. p.16.
- <그림 10> Johnny Hates Jass(2007). VOGUE KOREA 08. 서울: 두산매거진. p.305.
- <그림 11> 윤의한복(2007). 꽃처럼 아름다운 한복 드레스. 마이웨딩. <http://mywedding.design.co.kr/>
- <그림 12> Jason Wu (2007). 0708 F/W NEW YORK Collection. <http://blog.daum.net/mspa5304/12577168>

- <그림 13> 노승은(2007). VOGUE KOREA 08. 서울: 두산매거진. p.300.
- <그림 14> 박슬녀(2006). 박슬녀 한복인생 23년 기념 패션쇼.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 <그림 15> 한혜자(2007). VOGUE KOREA 08. 서울: 두산매거진. p.298.
- <그림 16> 이영희(2007). 0708 F/W Seoul Collection. 이영희. <http://www.leeyounghee.co.kr/>
- <그림 17> 백옥수(2007). 꽃처럼 아름다운 한복 드레스. 마이웨딩. <http://mywedding.design.co.kr/>
- <그림 18> 국립민속박물관 역음(1995). 한국복식 2천년.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p.90.
- <그림 19> 문화관광부 한국복식문화 2000년 조직위원회 역음(2001). 우리 옷 이천년. 서울: 미술문화. p.103.
- <그림 20> 국립민속박물관 역음(2003). 생활속에 담긴 우리옷의 발자취.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p.61.
- <그림 21> 문화관광부 한국복식문화 2000년 조직위원회 역음(2001). 우리 옷 이천년. 서울: 미술문화. p.103.